

## 주 5일 근무와 농촌, 도시교회간의 연대 방안

김수영(목사, 경남 거제 다대교회)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에서도 뜨겁게 달아 오른 '주 5일제 근무' 시행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 문제와 관련 노·사 간에 대립적인 양상을 보이던 분위기는 최근에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시행 가능성이 높아 졌으며, 정부가 내년 초부터 공무원 등 공공 부문에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것을 발표함으로써 구체화 됐다.

주 5일 근무는 경영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기업경쟁력이 떨어져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는 여가를 이용한 재충전을 통해 보다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고용 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찬성하면서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가계지출 증대 등을 우려하기도 한다. 어쨌든 간에 주 5일 근무는 시간상의 문제일 뿐 대세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찬반 양론의 뜨거운 논란 속에 실시되는 주 5일 근무는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다. 생산시

간이 줄어드는 반면 소비시간이 늘어나기에 이 소비시간을 위한 비용(지출) 증대는 사회 산업구조를 바꾸어 놓을 것으로 보이며 늘어난 여가시간의 활용은 인간의 의식과 생활 구조에까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의 변화 물결 속에 앞으로 교회는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생산 공간이나 생산 시간이 아닌 소비 공간과 소비 시간에 교회가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즉 교회의 주된 활동과 공간이 주일(일요일)에 맞추어져 있기에 더욱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교회는 소비 공간과 소비 시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들, 특히 세상적인 여가활동과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런 사회적인 변화의 물결을 넘어서서 경쟁력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서구 사회의 교회처럼 후퇴할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동안 주 5일 근무제를 두고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표해 왔다. 그 이유는 옛세 동안 일하고 이레되는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안식일 개념에 위배되는 교리적 차원과 교인들의 여가 이용 시간이 늘어나고 휴가 문화가 일반화됨으로써 자연스레 들로 산으로 나가 교회가 텅 비고 말 것이라 우려해서였다. 분명한 것은 교회가 교리 차원이나 교세(주일 출석 감소율) 위축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은 또 다른 집단 이기주의일 뿐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주 5일제 근무가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반대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주 5일 근무제와 관련,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문화선교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시간의 활용 방안에 대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가지겠다고 대답했고 취미생활 및 여행 등 여가를 즐기는데 사용하겠다는 응답자는 28.6%, 공부 강습 등 능력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자는 15.4%, 휴식으로 육체적 피로를 풀겠다는 응답자 5.9%,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등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자 3.1%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대부분이 주말 여가 시간을 가족과 함께 취미생활 및 여행 등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주말이 되면 도시 교회 교인들의 상당수가 들로 산으로 관광지로 농촌으로 자연으로 휴가를 떠나게 될 것이므로 도시교회의 교세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처럼 급격한 사회 변화의 물결 속에 현대 도시교회들이 성도들에게 교회가 이들 동안의 여가를 즐기는 것보다 더 나은 의미를 제공해 주지 못할 때 도시교회의 교세 하락은 가속화 될 것이지만 교회가 다른 어떤 영역에서도 제공할 수 없는 영적 의미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성도들에게 공동체를 통한 여가, 휴식, 친교, 봉사 등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면 상업주의에 의해 움직여지는 여가 활동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무튼 주 5일 근무제는 도시교회에 크다란 부담이요 위기로 작용할 것이다. 그에 반해 농촌 교회는 자연스레 휴가 나온 도시교회 성도들로 인해 채워질 것으로 예상해 본다. 정거장 교인들이긴 하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농촌교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농촌이 철저히 소외되었다. 모두가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갔으며 그러다 보니 농촌은 텅텅 비게 되고 농촌을 장으로 하는 농촌교회는 자꾸 약해져 미자립 교회가 속출하게 되어 도시교회의 큰짐이 되어 동정의 대상으로써의 선교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농촌교회의 현실 속에서 주 5일 근무제는 농촌교회의 새바람이 될 것이다. 도시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이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으로 떠나게 될 터인데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가 되면 될수록 더욱 그리할 전망이다. 왜냐하면 농촌은 생명의 현장이기 때문이다. 사실 자연보다 더 큰 자원이 어디 있겠는가? 때맞추어 실시되는 주 5일 근무제가 이러한 사회 변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조선산업으로 유명한 거제도에 새장승포교회(1,000명 정도 회집)가 있다. 대우조선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 구성원인데 격주로 토요일 휴무제가 실시되는 주일에는 성도들의 1/5정도가 빠져나가 교회가 썰렁할 정도로 빈자리가 많다고 한다. 이는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도시교회의 변화가 아닌가 한다. 빠져나간 성도들은 고향으로 농촌으로 자연으로 나들이 한 것이 분명할 것이고.....

이제 피폐해진 농촌교회에 희망이 보인다. 약하다고 절망하지만 말고 농촌교회도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나약함에서 벗어나서 급격한 사회 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다. 머지 않아 주 5일 근무로 인해 도시 중심의 교회에서 농어촌 교회 중심으로 그 활동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도시교회는 자만심을 버리고 농촌 교회와 함께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협력하여 다가올 사회 변화의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성도들을 건강한 믿음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며 소외된 농어촌교회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와 농촌, 농촌교회와 도시교회는 결코 따로 일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촌교회는 농촌교회대로 도시교회는 도시교회대로 준비하고 서로 연대하면서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농촌교회는 주말 휴가와 함께 말씀과 안식(쉽)과 경건이 있는 현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도시를 떠난 성도들이 자연

스레 찾게 될 것이다. 풀이 있으면 벌은 오기마련이니까.....

그리고 주말 농장 텃밭 가꾸기, 노동을 통한 영성훈련 프로그램 개발, 주말 영성가족캠프 현장 만들기, 주말농장 기도원이나 수양관 운영, 농촌체험현장, 가족생명캠프, 농촌일손돕기와 농촌지역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도·농간의 무농약 유기농산물직거래 장터 운영, 금식영성훈련, 건강향토방 운영, 전통문화공연 등으로 전원교회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무너지는 도시교회와 한국교회를 지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교회는 자연, 생명을 지키는 농촌교회 현장을 활용해서 주말 여가를 위해 떠나는 성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적절한 농촌교회를 선택하고 도시교회의 기도원이나 수양관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농간의 교회가 함께 공동 프로그램에 개발하여 주말 문화센터나 공간으로 계획하고 시설 투자 및 인적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농촌교회와 그 지역의 농촌마을을 위한 봉사활동을 조직적으로 펼칠 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전량을 나누고 그 지역민들의 애환을 함께 나누면서 이·미용 봉사나 무료의료진료, 시골사랑방(노인대학)운영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농촌봉사와 체험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농촌을 살리고 농촌교회를 일으키는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도·농교회의 시대적 과제요 사명이다. 그 동안 소외되었던 농촌교회를 시대가 부르고 있다. 이 시대의 부름에 농촌교회는 응해야 할 것이며 그 날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교회는 지난 날 한국교회의 초석을 놓았던 못자리 교회인 농촌교회에 대해 빛진 자의 겸손한 마음으로 농촌교회와 연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교회의 어려움은 도시교회의 어려움이라는 공동체적인

바탕 위에서 동정적, 시혜적 차원이 아닌 선교 정책적이고 선교 동역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주 5일 근무제라는 사회 변동과 함께 교회 환경의 변화로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현실로 다가온 주 5일 근무제를 두고 이제 더 이상 찬반 논의와 같은 소모적 논쟁은 접어두고 도시교회는 도시교회대로 농촌교회는 농촌교회대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롭게 헤쳐 나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